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지표설정과 평가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동굴 관광지를 사례로 하여 -

차승훈 · 이희연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대학원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1. 서론

환경의 파괴와 함께 환경에 대한 위기 의식이 증대되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논제가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Our Common Future (WCED, 1987)'라는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이후, 1992년 리우회의를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은 사회 전반에서 추구해야 할 보편적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관광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등장시켰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관광 개념 자체가 지금까지 서로 상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되어온 관광개발과 자연환경보전을 융화 또는 통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다양한 이해 관계가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대립과 분쟁들은 단순히 생태계나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전통과 같은 무형적 가치를 둘러싼 문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Bahaire and Elliot-White, 1999).

이와 같은 대립과 분쟁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의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의 개념적 정의를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접근 방법론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주어진 시점에서의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수준에 대한 평가는 향후 관광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시행된 개발 계획과 전략의 효과를 판단할 수도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오고 있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개념적인 차원에서 지표 설정에 대해 논의하거나 지표를 실제로 측정하는 변수들을 단지 제안하는데 그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수준을 측

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군의 설정과 이를 실제로 측정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특히 다양한 관광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관광 지표에 대한 연구나 설정된 지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굴관광지를 사례로 하여 '관광자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지표 설정'과 '지속가능성 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서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분석기틀을 마련한다. 둘째, 동굴관광지에 초점을 두고 동굴 관광지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는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단양군 고수동굴을 사례로 하여 작동적인 차원에서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성 평가 지표의 작동적 적용 방법론을 모색한다. 넷째, 동굴관광지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모색한다.

사례지역인 고수동굴 관광지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동굴관리소의 내부자료와 '천연기념물 공개동굴 실태조사 및 보존대책 연구 보고서(문화재청, 2000)'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회·문화적 부문과 자료수집이 어려운 경제적 부문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고수동굴 주변 점포의 사업주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계량화시키기 어려운 측정변수인 제도적 부분의 지속가능성 수준은 고수동굴관리소장과의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하였다.

2. 지속가능한 관광 지표 설정과 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석기틀

지속가능한 관광은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관광 부문에 도입·적용된 것으로서,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것은 서로 상반된 경제적 관점과 환경적 관점을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인 '지속성'이란 현재 세대가 누리고 있는 권리를 미래 세대가 동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로 인해 야기되는 환경적 파괴와 악영향은 세대간의 형평성을 무너뜨리게 됨을 시사해준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도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에서 매우 중요하다. 사회적 형평성은 같은 세대 내에서의 형평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이나 그룹들 사이의 경제적 편익이나 삶의 질 및 만족도 등에 대한 형평성을 의미한다. 즉, 특정 그룹이나 개인만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개발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지표 설정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에서 개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표를 들 수 있다. 이 지표는 관광 부문의 관리자나

실무자들이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관광지가 겪고 있는 문제를 인식하고 관광 미래에 대한 위협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관광의 실현을 위해 의사결정자가 알아야 할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외에도 Farsari(2001)는 집중화된 대중 관광이 성행하고 있는 기존 관광지의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지중해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측정 지표를 개발하였다. 지속가능한 관광 원칙과 목표에서 지표를 유도하는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지표를 연구한 예로는 김동렬(2000)은 지방정부 수준에서 활용가능한 지속가능한 관광 지표를 델파이 조사와 계층분석법(AHP)을 사용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김대관(2001)은 지속가능한 관광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기보다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새로운 각도에서 체계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았다. 특히 그는 지속가능한 관광 지표의 정책적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지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참조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지표로 환경, 사회·문화, 경제, 제도의 네 부문으로 분류한 후에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관광지의 총체적인 지속가능성 수준을 측정,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분석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였다.

첫째, 환경, 사회·문화, 경제, 제도 등등 여러 부문의 방대하고 비체계적인 자료를 체계적, 분석적으로 제시하여 현재의 상태와 변화 추세, 목표 달성 정도 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실시간적, 즉각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수집, 저장, 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련 단체나 정부 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하며, 관광 정책 수립시나 특정 이슈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사결정 지원 도구 및 계획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셋째,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잠재적인 환경 문제나 관광 매래의 위협에 얼마나 노출, 또는 근접하고 있는가에 대해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넷째, 관광활동이나 관광정책이 관광지의 지속가능서성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할 수 있게 하며, 서로 다른 관광지들과의 지속가능성 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할 수 있게 하는 척도로 활용될 수 있게 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관광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공공적 인식을 자극할 수 있는 홍보적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동굴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평가지표 설정

동굴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측정, 평가하기 위한 지표는 네 부문으로 나누었다. 먼저 환경

적 지속가능성 수준에 대한 평가는 현 세대의 관광경험을 극대화하는 한편 미래 세대의 관광기회를 보장 및 향상하고자 하는 목표수준에 비추어 동굴관광지의 환경적 질이 보전 및 향상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생물종 다양성 유지 및 향상(생태계보전), 수용력을 고려한 관람객수용(스트레스), 보호 지역 확대(환경보전), 오염 및 훼손 최소화, 효율적인 자원 사용' 등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동굴 관광지의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수준은 동굴관광지의 지역사회가 사회·문화적으로 보다 건전하고 활력있게 유지되고 성장될 수 있는지와 동굴 관람객의 만족도가 대상 동굴에 대한 관광문화를 지탱 및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측정,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 척도는 지역주민과

<표 1> 동굴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측정·평가하는 지표와 측정변수

평가부문	지 표	측 정 변 수
환경적 지속가능성	생태계보전	동굴생물의 종수, 위기 종의 수, 사라진 종의 수, 동굴동물의 종다양성, 동굴동물의 정착율
	스트레스	수용력을 벗어난 관람객수, 쓰레기양, 한계치를 넘어선 미기후변화(기온, 습도, 이산화탄소농도), 동굴길이당 관람객수, 조도량
	오염 및 훼손	녹색오염, 흑색오염, 백색오염(건화), 박리현상, 파손 및 붕괴
	환경보전	비개발 지역의 비율, 비공개 구간의 비율, 보전지역의 비율, 구간별 휴식제 도입 여부
	자원사용의 효율성	공개길이당 전등수, 재생에너지 사용비율, 재활용재화의 사용비율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	주민의 삶의 질	인구당 문화시설 면적, 인구당 교사수, 지역주민의 만족도, 가장 가까운 상업시설과의 접근성
	사회적 영향과 안전성	주민대 관광객 비율, 범죄발생수, 관광객에 대한 주민의 피해의식, 파출소나 소방서와의 접근성
	관광객 만족	재방문 의사, 추천 의사, 재방문 관광객의 비율, 만족도
	관광자원의 다양성	타 관광자원과의 접근성, 30분내의 다른 관광자원수, 단위면적당 관광자원수
	의식의 건전성	주민 및 관광객의 환경보전 의식, 관광 종사자들의 친절도, 환경 훼손 행위
경제적 지속가능성	지역경제에 기여도	지역내 총생산에서 동굴관광의 비율, 동굴관광 소득의 지역흡수율
	최소수익보장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수입 여부, 소득에 대한 만족도
	비수기 수익성	비수기 영업 여부, 월평균 매상의 편차, 비수기와 성수기의 소득 편차
	관광홍보	홍보 예산, 홍보에 사용된 비용
	관광 수용력 향상	개발 예산, 개발에 사용된 비용
제도적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참여 및 협력 수준	동굴관광지 개발·홍보·관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주민의 참여의지, 민관의 협력수준, 협력 네트워크
	이용분산 및 관광객 교육	입동전 환경교육 실시여부, 이용분산시스템 도입여부, 관람객 통제여부
	환경 모니터링	수시점검(천연동굴보존·관리지침)
	장기종합계획	동굴 관리 및 개발·보전에 관한 장기종합계획의 수립 여부
	연구 및 조사	안전진단 및 실태조사 격년 실시 여부

관광객의 사회·문화적 만족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주민의 삶의 질, 사회적 영향과 안전성, 관광객 만족, 문화자원의 다양성,의식의 건전성' 등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한편 동굴 관광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 수준은 관광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지역경제를 성장시키고 있으며, 지역의 관광주체와 객체들이 이러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더욱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내실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 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굴관광지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지역경제에 기여도, 최소수익보장, 비수기 수익성, 관광 홍보, 관광 수용력 향상' 등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동굴 관광지의 제도적 지속가능성 수준은 '동굴관광지의 제도적 지속가능성'은 동굴관광지를 중제하고 조절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동굴관광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얼마나 고려하고 있으며, 더불어 동굴관광지의 사회 구성원들이 제도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올바른 제도 구축과 제도에 대한 높은 충성도는 동굴관광지를 보다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적 부문에서의 동굴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은 '지역사회의 참여 및 협력, 이용분산 및 관광객 교육, 환경 모니터링, 장기종합계획, 연구 및 조사' 등이 지표를 선정하였다(표 1 참조).

4. 사례연구: 고수동굴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수준의 측정 및 평가

관광지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적용하려는 경우 부딪치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측정변수에 대한 자료수집의 가용성과 평가방법이다.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지표를 조작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변수에 대한 데이터들이 현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또한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치나 상대적 기준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례로 선정한 관광지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속가능성 수준을 측정,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를 측정,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인 척도로 지속가능성 수준을 측정하였다. 즉, 측정변수의 범위와 특성 및 지속가능성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관광 동굴지와 비교하거나 '지난 5년간 평균치'와의 시계열적 비교를 통해서 측정치를 산출한 후에 이를 산형 표준화 방법을 이용하여 표준화시켰다. 또한 지표들간에 중요도가 서로 상이하며, 서로 다른 부문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도 다를 것이라는 전제하에 각 부문별로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쌍별비교법을 사용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관광자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제로 조작적으로 측정한 후에,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 지속가능성 수준을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대적으로 지속가능성 수준이 낮은 부문이나 지표에 초점을 맞추어 그 원인을 규명하여 지속가능성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을 판정할 수 있으며,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속가능성 평가와 관련하여 제기된 가장 큰 제한점은 각 지표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측정변수에 대한 자료수집 및 측정방법의 부재, 지속가능성 판단의 근거가 될 절대치나 기준치의 미비 및 그와 관련한 평가함수 설정의 어려움, 가용한 자료의 신뢰성 문제 등이다. 앞으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수적인 측정변수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고 그 평가함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평가시스템을 개발한다면 지속가능한 관광지 개발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